"광주·무안 공항갈등 이젠 끝내야"

무안공항 이용객 급감 … 둘다 '공멸의 길'

공군부대 이전 패키지 해결책 찾자 목청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재유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간 지루한 공항 쟁탈전이 또다시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무안공항 개항과 함께 광주공항 국제선이 무안공항으로 이전된 이후 국제선 이용객이 급감해 두 공항이 공멸의 길을 걷고 있는데다, 광주공항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줄곧 호소하고 있어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문화교류회는 9일 오후 광주시 동구 히딩크 호텔에서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7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항 국제선 재취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열린 것이어서 앞으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광주공항은 4개 노선 주 13편의 국제선 노선을 보유했지만 2008년 5월 무안공항으로 모두 이전했다. 하지만 무안공항의 활성화가 늦어지면서 국제선 노선이 주 3~5편으로 감소하고, 운항횟수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광주공항의 경우 국제선 운항횟수가 2006년 1253회, 2007년 1216회, 2008년 5월까지 170회였지만 무안공항은 2008년 1066회였다가 지난해 390회, 올해 8월까지 366회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는 일부 여행업계와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광주공항 국제선 재유치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광주시도 '도시 경쟁력 제고' 등을 이유로 국토해양부에 국제선 재유치를 건의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로 한 '제3차(2006~2010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조만간 광주공항 국내선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무안 시민·사회단체 등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항 국내선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양 시·도간 불편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지역에서는 공항 이전 및 존치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양보와 대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를 비롯해 광주 도심권 군용비행장으로서 소음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군 공항과 광주공항을 한데 묶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이해관계보다는 각 지역의 교통여건과 수요 등 객관적인 조건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찬 광주대 관광학부 교수는 "중요한 것은 광주·전남, 나아가 호남의 발전과 시·도민의 항공교통편의를 확보하는 것이지, 공항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놓고 열린 자세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막 3D 입체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최첨단 문화컨텐츠가 선보이는 '2010 국제문화창의산업전(ACE Fair 2010)'이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 35개국에서 문화관련 업체 325개사와 국내외 바이어 250여명이 참가해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선보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산 고속전기차 '블루온' 첫선

내년부터 본격 양산 … 2020년까지 100만대 보급

내년부터 고속전기차 양산이 시작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고속전기차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1호 소형 고속전기차인 '블루온(BlueOn)' 공개행사를 열고 2020년까지 100만대를 보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고속전기차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차를 시승해 청와대 경내를 한 바퀴 돌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전기차를 직접 운전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애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중형 전기차 양산시기를 2014년으로 3년 앞당기고,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개발도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을 검토하고서 2012년부터 추진한다. 지경부는 특히 2015년까지 국내 소형차 시장의 10%, 2020년까지는 국내 승용차 시장의 20%가 전기차로 바뀌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차와 220만대의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2011~2012년 공공 부문, 2013년 민간 부문으로 전기차 보급을 순차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2012년까지 공공기관에 대당 2000만원 한도로 동급 가솔린 차량과의 가격차 50% 수준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전, 나주 혁신도시 현장사무소 설치

청사 건립 탄력 … 전력거래소 등 8곳 부지매입 끝내

한국전력공사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현장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청사 건립에 나섰다.

9일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한전이 이날 나주 혁신도시내 본사 부지에 현장사무소를 개소하고 본사 건립팀 직원들이 12월까지 비정기적으로 상주하면서 설계에 따른 이전 업무를 추진한다. 한전은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키면서 청사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전 청사는 14만9372㎡부지에 4600억원을 투입해 지상 41층 연건평 11만8655㎡ 규모로 건립되며 1425명의 임직원이 공동혁신도시로 옮겨와 근무하게 된다.

현재 청사건립을 위한 기본설계가 40%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다른 이전기관과 달리 실시설계와 착공이 동시 추진되는 턴키방식으로 청사를 발주한다.

한편 혁신도시 기반공사 전체 공정률은 40%대로 전력거래소 등 8개 기관이 부지매입을 끝냈고 전파연구소 등 8개 기관은 청사 설계를 발주한 상태다. 우정사업정보센터, 전파연구소, 사학연금관리공단, 해양경찰학교는 연내 청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장에 안가면 될것' 이상!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내달중 신청

광주시 시민 의견수렴 절차 착수

광주시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역 여론이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달 중으로 최종안을 작성해 환경부에 신청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복안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산악인, 담양군·화순군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그동안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돼 온 '무등산의 품격있는 생태자원관리 TF팀'이 지난달 27일 최종 3차회의에서 시민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공청회 사회는 송인성 전남대교수가 맡고 박승필 전남대교수, 임희진 광주시 공원녹지과장, 최봉석 국립공원관리공단 기획조정처장이 각각 무등산의 자연자원과 국립공원 지정 필요성,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과정 및 효과, 우리나라 국립공원 정책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농산어촌 개발사업 50개 국비 1710억 확보

농림부 신규사업 선정

전남도는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광양시 국사봉권역 종합정비사업' 등 도내 50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등 4개 유형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확정된 주요 사업은 광양시 국사봉권역 종합정비사업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2011년 처음 시행하는 창조지역 사업인 순천시의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과 문화로 가꾸는 경관농업',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관련 신규사업 개발비로 앞으로 5년간 171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의 계속사업비까지 포함할 경우 확보된 국비는 1967억원에 달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김치·천일염서 항비만 유산균 발견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된 천일염과 김치에서 항비만 효과를 가진 유산균이 발견됐다고 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림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정부로부터 3억3000여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우석대학교팀의 연구 결과, 김치와 천일염에서 분리한 유산균 균주가 항비만 효능이 있는 아미노산 물질인 '오르니틴'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www.ctcl.co.kr
까띠끌레 피부개선 기능성화장품
지역대리점 및 사원모집
- 소자본투자
- 안정된 수익률
- 미용관련종사자 우대
열정 가득한 분을 모십니다!!
지역대리점은 (목포, 여수, 순천, 익산, 전주, 남원 등입니다.)
까띠끌레는!
* 전국 1,800여개 피부과에 입점중인 병원 전문 화장품 브랜드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중금속 시험을 통과한 화장품 브랜드
* 국내 최초 더마프로 임상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브랜드
* 2010년 프레타포르테부산 공식 지정 화장품으로 선정된 명품브랜드 화장품
* 태국 Watsons 매장 입점중인 화장품 브랜드
* 세계 다수 국가로 수출중인 화장품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두바이 등 다수)
* 국내 유명 헤어샵에 입점중인 화장품
방문판매 및 관리사원 모집 : 자유로운 출퇴근, 안정된 고수익률, 투잡가능

지사방문시 행운 가득!
Caticlair 까띠끌레 호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1-1 201호
☎ 062)362-1117 / 010-3608-6394

BEST
봉실 발크림 출시!!
약국판매용
튼살!! 굳은살!! 각질제거!!
무릎, 팔꿈치, 복숭아뼈,
발뒤꿈치 케어크림
거칠고 자주 트는 발을 매끈하게
수분 재생 탄력 브라이트닝

소비자가₩10,000
점포있으신 분, 취급하실 분 무자본 〈판매케이스와 발크림드립니다〉
유사업종 가게하신분이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업종 하신 분 환영!
절찬리 판매중!!! 자금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신비의 약초
쾌변! 한방에 3일
10일다이어트 3kg~5kg
아랫배 쏙~ 굶지맙시다!
효과없을시 100%환불
1개월분 5만원
(택배무료배송)
영업딜러모집 1시간 투자
월200만가능, 투잡,겸업가능
취급점, 대리점 및 창업자 모집중!
네이버카페 또는 다음카페에서 "유한바이오텍" 검색하세요!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株式會社 유한바이오텍
062) 954-5046
010-4624-5046
010-8364-1496